

트와이스, 고난도 안무곡 들고 컴백

걸그룹 트와이스가 고난도 안무곡을 들고 컴백했다. 'TT' '라이키' 등 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스처가 특징적이었던 댄스가 이번엔 힘이 넘치는 안무로 진화했다.

트와이스는 5일 KBS아레나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미니 6집 '에스 오어 에스(YES OR YES)' 를 공개했다. 올해만 세 번째 활동곡이고, 2015년 데뷔 후 총 10번째다.

데뷔곡 '우아하게' 를 시작으로 '치어업' 'TT' '낙낙' '시그널' '라이키' '하트 셰이커' '왓 이즈 러브' '댄스 더 나잇 어웨이' 까지 9개 활동곡의 안무 콘셉트는 밝고 경쾌함이었으며 누구나 알기 쉽고 따라하기 쉬웠다. 그러나 이번엔 파워풀한 동작이 추가됐다. 팔과 다리를 격렬하게 움직여야 하고 이동과 턴도 많다. 멤버 나연은 "기존 타이틀곡의 안무와는 다르게 난도가 높았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안무여서 연습할 때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 고 설명했다.



'에스 오어 에스' 는 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뽀뽀, 지니, 뷁스뮤직, 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10번째 활동곡까지 모두 흥행 정상에 올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아울러 음원과 함께 공개한 'YES or YES'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6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 약 10시간 27분 만에 2,000만뷰를 돌파하며 K팝 걸그룹 사상 최단 기록을 경신해 이목을 모았다.

한국 영화계 큰 별 고 신성일 영면

한국 영화계 큰 별이었던 배우 고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이 영면에 들었다.

지난 4일 타계한 고인의 영결식은 6일 오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별세했다. 영결식에는 부인인 배우 엄앵란 씨와 자녀 등 유족과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배우 안성기,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등 영화계 인사들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불교의식으로 치러진 영결식 후 고인의 유해는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한 후 경북 영천에 안치됐다. 고인은 "내가 묻힐 장소를 만들어줬다" 며 "나는 한옥에서 자랐고, 창덕궁 등 고궁에서 촬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한옥을 눈여겨보다가 영천에 집을 지었고, 그 옆에 묻히기로 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은 말년을 보낸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

한국 영화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한 '영원한 스타' 였던 신성일은 빼어난 외모와 지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1960년대 최고의 청춘스타로 활약했다. '로맨스 빠빠' (1960년)로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 '맨발의 청춘' (1964), '떠날 때는 말 없이' (1964), '위험한 청춘' (1966), '불타는 청춘' (1966), '별들의 고향' (1974), '겨울여자' (1977), '장남' (1984), '길소뜸' (1985) 등에 출연했다. 주연을 맡은 영화만 500편이 넘는다.

졸리·피트, 자녀 양육권 다툼 법정으로

2년째 이혼 소송을 벌여오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이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CNN은 6일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양육권 문제를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갔다." 고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2005년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에 함께 출연한 후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 해오다 2014년 8월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세기의 부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슬하의 매덕스(16),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엔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를 두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 이후 두 사람은 양육권 및 양육비 지원 등을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2년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두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양육비 다툼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은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8월 브래드 피트가 이혼 후의 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청구 서류를 LA법원에 제출했다. 브래드 피트 측은 "안젤리나 졸리와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으며 주택을 구입하는데 800만 달러를 보냈다." 고 주장했다. 안젤리나 졸리 측은 "이혼 당시 살던 주택은 브래드 피트가 가져갔으며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하기 위해 브래드 피트에 주택 구매비용의 50%를 요구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팽팽한 주장에 두 사람은 결국 LA법정 청문회에서 법정 심리를 거치기도 했다.

현재 안젤리나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래드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두 사람의 치열한 양육권 공방은 법정 심리를 거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37호 숫자퍼즐 정답

9	1	3	7	5	8	4	2	6
8	7	6	4	9	2	5	1	3
4	2	5	1	3	6	7	8	9
1	3	9	8	4	7	2	6	5
6	4	2	9	1	5	3	7	8
5	8	7	2	6	3	9	4	1
7	9	8	3	2	1	6	5	4
2	5	4	6	8	9	1	3	7
3	6	1	5	7	4	8	9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어떤 고객으로부터 자기의 집을 풍수지리와 수맥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자가 의뢰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풍수지리 감정을 하게 되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집이 서있는 터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주변 경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필자가 집주인에게 건넨 이야기는 "이 집은 풍수적으로도 흉지(凶地)에 해당하며 선생님의 사주와도 잘 맞지 않는 터입니다. 이 집에 거주하신 기간을 볼 때 아마도 이 집에 와서 사업도 어려워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독이 드는 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놀라는 표정으로 하는 말이 "원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이 집에 와서부터 사업도 안 되고 작년에 독이 들어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말은 "만약에 이 집을 사기전에 미리 나에게 이 집의 풍수 감정을 의뢰했다면 반드시 말렸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예전에 이 집을 사기 전에 어떤 분에게 집의 주소를 알려주고 풍수진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 좋다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집에 와서 사업도 안 되고 도둑까지 맞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주소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실제 현장 풍수에서는 크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주소만 가지고도 풍수지리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 이름만 가지고 병명(病名)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면서 일단은 그 집에서 풍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비보(裨補) 방안을 알려 주고 수맥이 흐르는 위치를 피해서 침대 위치를 옮겨 주고 그 집을 나섰다.

★ 사주명리·풍수·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